

영유아교사의 놀이성, 교수효능감, 반성적 사고, 창의적 교수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김종훈, 박선미*
경상국립대학교 아동가족학과

A Structural Analysis of Relations among the Playfulness, Teaching Efficacy, Reflective Thinking and Creative Teaching Behavior of Child Care Teachers

Jong-Hoon Kim, Sun-Mi Park*
Departmen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영유아교사의 놀이성, 교수효능감, 반성적 사고, 창의적 교수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를 밝히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B광역시 소재 어린이집에 재직 중인 영유아교사 29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23.0과 Mplus 7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상관관계,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부트스트래핑으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교사의 놀이성, 교수효능감, 반성적 사고, 창의적 교수행동 간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둘째, 영유아교사의 놀이성, 교수효능감, 반성적 사고, 창의적 교수행동 간의 구조모형을 분석한 결과, 놀이성과 창의적 교수행동 간 관계에서 놀이성이 교수효능감과 반성적 사고를 차례로 경유하여 창의적 교수행동에 완전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교사의 창의적 교수행동을 위해서는 놀이성, 교수효능감과 같은 정의적 특질이 반성적 사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반성적 사고와 같은 인지적 요인이 교수효능감을 통해 창의적 교수행동을 예측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놀이성과 창의적 교수행동의 관계에 작동하는 요인으로 교수효능감과 반성적 사고에 주목하여 매개모형을 제시함으로써 창의적 교수행동의 선행 요인들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조력 방안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of the relationship among playfulness, teaching efficacy, reflective thinking, and creative teaching behavior of childcare teachers. Participants were 293 childcare teachers in B metropolitan city.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s correlation,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using the SPSS 23.0 and Mplus 7 programs. Bootstrapping was used to test the significance of the mediating effects.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correlational analyses showed that all the variables were positively related. Seco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howed that the playfulness of childcare teachers has a direct impact on teaching efficacy, which then positively affects reflective thinking, which in turn impacts creative teaching behavior. Lastly, the playfulness of childcare teachers affected creative teaching behavior by mediating teaching efficacy and reflective thinking. Based on these findings, the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for further research are discussed.

Keywords : Child Care Teachers, Playfulness, Teaching Efficacy, Reflective Thinking, Creative Teaching Behavior

*Corresponding Author : Sun-Mi Park(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email: drpark@gnu.ac.kr

Received August 31, 2022

Accepted October 7, 2022

Revised October 6, 2022

Published October 31, 2022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19 개정 누리과정 시행과 함께 보육과정 운영의 현장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 교사는 더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교육과정 실행력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즉 교육과정을 계획한 대로 실행하기 보다는 영유아의 자발적 흥미와 관심에 따라 놀이 중심 보육과정을 적절히 변형시켜 나갈 수 있는 교수 역량이 요구되며, 이 기저에는 교사의 창의적 교수 행동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2019 개정 누리과정 시행 이후 최근 1~2년 간 영유아교사의 창의적 교수행동 변인에 대한 연구들이 증가한 점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창의적 교수행동은 학생들이 확산적 사고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식을 제공해주는 인지적 지원과 함께 학생 스스로 학습활동에 관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개방적이며 내재적 동기를 증진시키고 과제에 집중하도록 정의적 지원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1]. 이와 같은 창의적 교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크게 인지적 특성과 정의적 특성으로 구분된다[2]. 최근 영유아교육분야에서 수행된 창의적 교수행동과 관련 선행연구들[3-5]은 놀이에 대한 흥미나 관심과 같은 내적 동기 및 성향인 교사의 놀이성을 창의적 교수행동의 중요한 예측 변인으로 주목하고 있다. 이들 연구들은 놀이성이 높은 교사일수록 교수행동을 창의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해결전략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놀이성은 창의적 교수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교사로서 학습자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믿는 개인적 신념 요인인 교수효능감과도 관련성이 있다[6]. 또한 유아 놀이에 대한 교수효능감이 교사의 창의적 교수행동 간의 관계에서 매개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 선행연구 결과[5]를 고려해볼 때, 교수효능감을 매개로 한 간접적인 영향도 예상해볼 수 있겠다.

한편 창의적 교수행동은 확산적 사고와 행위, 일반적 지식과 사고기반, 특정 영역의 지식기반 및 기술의 인지적 요인과 집중하여 과제수행하기, 동기 및 동기유발, 개방성과 모호함의 허용의 정의적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1], 창의적 교수행동의 발현에는 인지적인 요인과 성향, 태도와 같은 비인지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영유아교사의 창의적 교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놀이성[3-5], 교수효능감[7-10]을 비롯하여 직무만족

[11], 정서노동[12] 등 다양한 정의적 요인과의 관련성이 주로 보고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연구들만이 사고양식, 교수메타인지, 자기성찰기능과 같은 인지적 요인[13-15]과 창의적 교수행동 간의 정적 상관을 밝히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 측면으로 교사의 반성적 사고에 주목하여 창의적 교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으로 탐색해 보고자 한다. 반성적 사고와 창의적 교수행동 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보고한 선행연구는 전무하나, 반성은 기본적으로 사유의 대상이 정신적 혹은 인지적 조작이라는 점에서 메타인지 개념과 매우 유사하다[16]. 즉 반성적 사고는 자신의 경험을 메타적으로 이해하면서 동시에 의미를 재구성하고 대안적 탐색을 하는 자기 성찰을 의미하므로, 메타인지의 일면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메타인지 수준이 높을수록 창의적 교수 수행이 높음을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14,15]를 볼 때, 메타인지적 속성을 지닌 반성적 사고는 교사의 창의적 교수행동을 발현시키는 데에도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유아교사는 반성적 사고를 통해 다양한 교수상황을 일상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보다 효율적인 교수행위로 나아가도록 문제의 상황을 직감하며 해결방안을 숙고하므로[17] 교사의 교수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18] 이는 결과적으로 창의적 교수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영유아교육·보육활동을 실행하는 데에 있어 교사 본인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나 긍정적인 태도인 교수효능감이 반성적 사고와 정적 상관이 있고 [17,19]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놀이성은 메타인지를 포함하는 종합적 사고력과 정적 상관이 있음[20]이 선행연구를 통해 입증된 바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볼 때, 영유아교사의 놀이성은 창의적 교수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놀이성과 창의적 교수행동 간 관계를 교수행위와 관련된 교사 신념인 교수효능감과 인지적 요인인 반성적 사고가 매개할 것으로 가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놀이성과 창의적 교수행동 간의 상호작용의 축진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교사가 가진 잠재적 창의적 교수행동을 발현시키는 효율적인 교사교육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또한 앞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반성적 사고와 같은 인지적 요인이 교수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창의적 교수행동을 증진시킬 수 있음을 가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변인 간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는 아직 수행된 바 없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교사의 창의적 교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의적, 인지적 제 변

인들의 인과관계를 탐색하기 위해 보육교사의 놀이성과 창의적 교수행동 사이에서 교수효능감과 반성적 사고가 매개하는 모형을 설정하여 그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1.2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다양한 경로를 연구모형(Fig. 1)과 비교하기 위하여 경쟁모형(Fig. 2)을 제시하였다. 경쟁모형은 놀이성과 교수효능감에서 창의적 교수행동 간의 직접효과를 제거한 모형이다. 상기의 연구목적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교사의 놀이성, 교수효능감, 반성적 사고, 창의적 교수행동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영유아교사의 놀이성과 창의적 교수행동 간의 관계에서 교수효능감과 반성적 사고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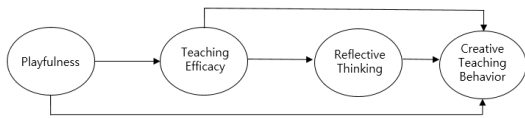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Fig. 2. Competing model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B광역시 어린이집에 재직 중인 영유아교사 300명이다. 설문지는 교사의 연구동의 하에 실시되었으며, 설문에 응답하여 회수된 설문지는 총 295부였다. 이 중 척도에 모든 문항을 응답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응답하지 않은 대상자를 제외한 총 293명의 자료가 통계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대상 교사의 연령은 20대 61명(24.8%), 30대 69명(28.0%), 40대 94명(38.2%), 50대 22명(8.9%)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전문대졸 139명(47.4%)으로 가장 많았고, 대졸 104명(35.5%), 보육교사교육원졸 31명(10.6%), 대학원졸 12명(4.1%) 순으로 나타났다. 국공립어린이집 15명(5.7%), 법인어린이집 8명(3.1%), 직장어린이집 43명(16.4%), 민간어린이

집 133명(50.8%), 가정어린이집60명(22.9%)으로 나타났다. 담당연령은 만2세 이하 173명(72.4%), 만3세, 29명(12.1%), 만4세(8.4%), 만5세 17명(7.1%)으로 나타났다. 교직경력은 5년 이하, 5년 이하 117명(45.0%), 6년 이상~10년 이하는 107명(41.1%), 11년 이상~15년 이하 26명(10.0%), 16년 이상 10명(3.8%)으로 나타났다.

2.2 연구도구

2.2.1 놀이성

놀이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Proyer[21]의 OLIW(Other-directed, Lighthearted, Intellectual, Whimsical)를 정수인[22]이 번역 및 역번역 과정을 통해 번안한 후, 문항분석과 요인분석 절차에 따라 타당화 한 한국판 성인의 놀이성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타인지향성 6 문항, 독특성 5문항, 걱정이 덜함 4문항, 자유로움 3문항으로 4개의 하위요인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요인별 문항 내용을 살펴보면, 타인지향성은 다른 사람들과의 놀이를 즐기며 좋은 의도의 장난을 즐기는 것을 의미하며, 독특성은 이상한 상황이나 특이한 것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 걱정이 덜함은 미래의 결과를 걱정하지 않으며 놀잇감을 확보해 두는 것, 자유로움은 계획을 세우기 보다는 즉흥적으로 사는 것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측정 방식은 Likert식 5점 평정척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의 점수가 높을수록 놀이성 수준이 높은 것임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 Cronbach α 는 .900으로 나타났다.

2.2.2 교수효능감

교수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Enochs와 Riggs[22]가 개발한 교사의 과학 교수효능감 검사도구 Science Teaching Efficacy Belief Instrument(STEBI)를 영유아 교육기관 상황에 맞게 수정·보완한 신혜영[23]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교사의 일반효능감 9문항, 개인효능감 13문항으로, 2개의 하위영역 총 2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효능감은 '유아가 평소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교사의 노력 때문이다', '유아의 적극적인 활동 참여는 그 활동에 대한 교사의 교수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이며, 개인효능감은 '나는 유아를 효과적으로 지도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나는 유아에게 어떤 활동의 목적을 이해시키는 것이 어렵다', '나는 유아의 질문을 반기고 격려한다'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설문지 내용 중 '아동'을 본 연

구의 대상에 알맞게 ‘유아’로 수정하였다. 본 도구의 측정 방식은 Likert식 5점 평정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의 점수가 높을수록 효능감 수준이 높은 것임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 Cronbach α 는 .875로 나타났다.

2.2.3 반성적 사고

교사의 반성적 사고를 측정하기 위하여 김하중[24]이 개발한 도구를 기초로 박은혜, 조운주[25] 등의 연구를 고찰한 후 반성적 사고를 일상, 교수, 학습 측면으로 분류·재구성하고 구안한 설문 문항을,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수정·보완한 김진미[26]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교사의 일상 4문항, 교수 8문항, 학습 5문항으로, 3개의 하위영역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요인 별 문항 내용을 살펴보면, 일상은 ‘나는 반성적 사고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나는 자주 내 행동을 반성하고, 이를 통하여 그것을 어떻게 개선시킬 수 있는지를 생각한다’ 등이며, 교수는 ‘내가 사용한 수업방법이 수업목표와 내용에 비추어볼 때 적합한 것인지 생각한다’, ‘내가 이용한 수업전략이 성공적이었는지에 대해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등이며, 학습은 ‘나는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유아를 파악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나는 수업에서 이용한 평가 방법이 유아들의 학습목표 달성 정도를 평가하는데 효과적이지 생각한다’ 등으로 구성되었다. 본 도구의 측정 방식은 Likert식 5점 평정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의 점수가 높을수록 반성적 사고 수준이 높은 것임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 Cronbach α 는 .956으로 나타났다.

2.2.4 창의적 교수행동

창의적 교수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Cropley[1]가 제안한 교수창의성 척도를 기초로 백영숙과 김희태[27]가 타당화한 교사 창의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교사가 자신의 교수 행동에 대한 인식을 자기보고식으로 측정한 것으로, 문항 구성은 인지적 요인 19문항, 인성적 요인 16개 문항으로, 2개의 하위영역, 총 3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구성을 살펴보면, 인지적 요인은 확산적 사고와 행위, 일반적 지식과 사고기반, 특정영역의 지식기반과 기술의 3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성적 요인은 집중하여 과제수행하기, 동기와 공기유발, 개방성과 모호함의 허용을 구성되어 있다. 본 도구의 측정 방식은 Likert식 5점 평정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의 점수가 높을수록 창의적교수행동 수준이 높은 것

임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 Cronbach α 는 .955로 나타났다.

2.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3.0과 Mplus 7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전체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전체변인들 간의 구조 및 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 SEM)을 통해 분석하였다. 실제 자료가 이론적으로 도출한 인과모형을 얼마나 지지해 주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통계 프로그램 (Mplus 7)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바와 같이 순차적 매개효과가 있는 경우 개별 매개효과(specific indirect effect)를 추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Mplus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모수치 추정방법으로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하였으며, 구조방정식 분석 절차로 2단계 접근(Two-step approach)[28]에 따라 측정모형 검증 후, 구조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더불어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Bootstrapping을 이용하여 유의도 .001에서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3. 연구결과

3.1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전체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를 실시하였다.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 계수는 .249~ .692으로 나타나 변인 간의 다중공선성을 의심할 수준이 아니었으며, 판별타당성과 법칙타당성을 확보하였다.

Table 1.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N=293)

Variable	1	2	3	4
1. Playfulness	1			
2. Teaching Efficacy	.274***	1		
3. Reflective Thinking	.360***	.456***	1	
4. Creative Teaching Behavior	.249***	.446***	.692***	1

*** $p < .001$

3.2 구조모형 분석

연구모형의 모형추정가능성과 부합도를 검증을 위해 최대우도추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절차에 의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모형의 부합도를 추정하였다. 놀이성, 교수효능감, 반성적사고, 창의적 교수행동은 각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2차원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검사도구로서 각 지표변수가 개념을 대표할 수 있도록 모든 요인에 속하는 혼합하는 방법인 내적영역대표성 접근법(internal consistency approach)을 사용하였다[29]. 본 연구에서는 표본크기에 민감하지 않고, 간명성을 고려하며 적합도 지수의 기준이 확립된 RMSEA, TLI, CFI, SRMR를 통해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Table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2 = 92.726$, ($df=36$, $p=.000$), $TLI=.949$, $CFI=.967$, $RMSEA=.073$, $SRMR=.049$ 로 나타났으며, 구조모형적합도 권장지수[30]에 근거해 비교한 결과 본 연구의 구조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3.3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분석

연구모형과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제시한 경쟁모

형들과의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을 살펴보면, 경쟁모형과 χ^2 값의 차이는 .02, $df=1$ 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자유도 값이 1 차이가 날 때, χ^2 값이 2.84이상 차이가 나면 유의한 모형으로 판정함으로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은 최종모형을 채택하는데 무리가 없다. 하지만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가설을 모두 충족한 연구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chi^2 = 70.975(df=33$, $p=.000$), $TLI=.963$, $CFI=.978$, $RMSEA=.063$, $SRMR=.044$ 로 적합도 권장지수에 따라 본 연구의 구조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교사의 놀이성, 반성적사고, 교수효능감이 창의적 교수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각 변인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와 최종모형의 경로계수는 Table 3과 Fig. 3에 제시하였다.

각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교사의 놀이성은 교수효능감($\beta=.637$, $p<.001$)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의 교수효능감은 반성적사고($\beta=.913$, $p<.001$)에, 반성적사고는 창의적 교수행동($\beta=.761$, $p<.001$)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Table 2. Fit Index of Research Model and Competing model

Fit Index	χ^2	df	p	TLI	CFI	RMSEA	SRMR
Research Model	92.726	.36	.000	.949	.967	.073	.049
Competing Model	92.752	37	.000	.951	.967	.072	.049

Table 3. Direct effects of model

Path	B	β	C.R	p
Playfulness → Teaching Efficacy	.322	.637	5.620	.000
Teaching Efficacy → Reflective Thinking	1.501	.913	7.897	.000
Reflective Thinking → Creative Teaching Behavior	.696	.761	10.566	.000
Playfulness → Creative Teaching Behavior	.007	.009	.164	.8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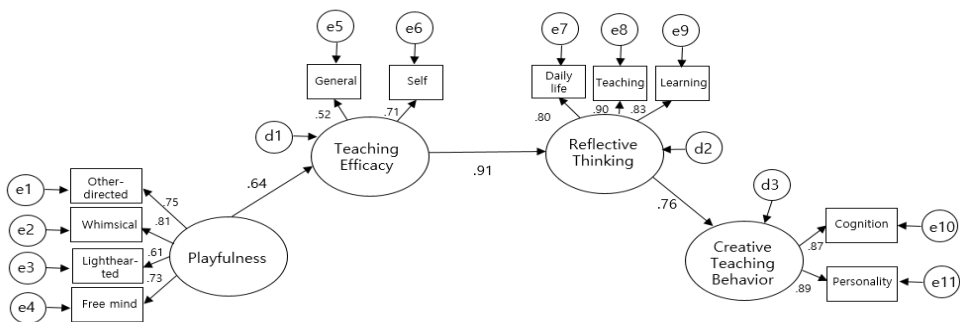


Fig. 3. Verification on the measurement model

다. 하지만 영유아교사의 놀이성은 창의적 교수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009$, N.S). 따라서 영유아교사의 놀이성은 교사의 창의적 교수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교수효능감에 영향을 미쳐 이는 교사의 반성적 사고로 발휘되어, 창의적 교수행동이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각 변인 간의 간접효과의 통계적유의성은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통해 검증하였으며 Table 4와 같다. 교사의 놀이성은 교수효능감과 반성적 사고를 거쳐 창의적교수행동에 영향($\beta = .443$, $p < .0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영유아교사의 놀이성은 교수효능감과 반성적사고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최종적으로 교사의 창의적 교수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Table 4. Indirect effects of model

Path	B	β	p
Playfulness → Teaching Efficacy → Reflective Thinking → Creative Teaching Behavior	.337	.443	.010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영유아교사의 창의적 교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의적, 인지적 제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놀이성과 창의적 교수행동 간 관계에서 교수효능감과 반성적 사고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모든 변인들 간에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놀이성 수준이 높을수록 교수효능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 두 변인 간의 관계를 밝혔던 선행연구 결과들[5,6]과 일치한다. 또한 놀이성 수준이 높을수록 반성적 사고 수준 역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놀이성과 반성적 사고 간의 상관관계를 직접적으로 보고한 선행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이 두 변인 간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유추만 가능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이 두 변인 간 정적 상관관계를 확인한 것은 의미 있는 결과라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놀이성의 하위요인인 자유로움, 격정이 덜함 등의 성향특성들이 상황의존적으로 발생하는 예기치 않은 교수학습상황에서 교사가 의구심을 가지고 문제를 포착하여 탐색하고 분석

하도록 사고를 이끄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매개변인인 교수효능감과 반성적 사고 간에도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는데 이는 채영란[17]의 연구에 부합하는 결과로 교수효능감과 반성적 사고의 순차적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또한 교수효능감과 창의적 교수행동 간의 정적 상관관계 결과 역시 다수의 선행연구[7-10]와 일치하며 이상의 상관관계 결과를 통해 이 변인들 사이에 복합적 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결과, 영유아교사의 놀이성과 창의적 교수행동 간 관계에서 교수효능감과 반성적 사고는 순차적인 완전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놀이성이 교수효능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교수효능감은 반성적 사고를 증진시켜 결국 창의적 교수행동을 발현시킨다는 구조적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로를 설정하여 검증한 연구가 전무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비교하여 논의하기는 어렵지만, 교사의 놀이성과 교수효능감이 창의적 교수행동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관련 변인 간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5,7-10]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놀이성이나 교수효능감과 더불어 반성적 사고를 함께 고려하여 모형을 설정하였고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놀이성과 교수효능감의 설명력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놀이성이 교수효능감과 반성적 사고를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창의적 교수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본 연구의 결과는 놀이성과 같은 개인의 성격특질이 창의적 교수행동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며, 교수효능감과 같은 신념체계와 반성적 사고와 같은 인지적 요인을 경유하여 영향력을 가짐을 의미한다. 또한 교수효능감이 높을 경우보다 높은 반성적 사고 수준으로 이어지는 매개효과 순서는 창의적 교수행동 증진의 강력한 예언 변인으로 보고되고 있는 교수효능감[7-10]이 반성적 사고 수준을 높이는 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창의적 교수행동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반성적 사고도 중요하지만 교사의 역할수행에 대한 교수효능감을 높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하겠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보육과정 개정과 더불어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영유아교사의 창의적 교수행동 증진에 도움이 되는 교사 내적 자원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떠한 개입이 강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함의를 제공한다. 즉 창의적 교수행동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각 단일 변인에 대한 조력보다는 정의적 특성과 인지적 특성

을 모두 고려하고 놀이성, 교수효능감, 반성적 사고를 순차적으로 높일 수 있는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조력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에 따른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결과가 영유아 교사의 창의적 교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인지적, 정서적 특성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시사하기는 했지만 이를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으므로 영유아교사의 창의적 교수행동 증진을 위한 다양한 교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에 대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한 시점에서 수집된 자료를 사용하여 횡단연구를 시행함으로써 시간의 흐름에 따라 창의적 교수행동, 놀이성, 교수효능감, 반성적 사고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확인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추후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확인하여 변수 간 인과 관계를 보다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종단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셋째, 영유아교사의 창의적 교수행동을 보다 더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놀이성, 교수효능감, 반성적 사고 외에 창의적 교수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교수메타인지, 사고양식 등 인지적 요인과 교수몰입, 정서노동, 직무스트레스 등 다양한 변수들에 대한 포괄적인 구조 탐색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이상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는 놀이성과 창의적 교수행동의 관계에 작동하는 요인으로 교수효능감과 반성적 사고에 주목하여 매개모형을 제시함으로써 창의적 교수행동의 선행 요인들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조력 방안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References

- [1] Cropley, A. J., *Creativity in education and learning: a guide for teachers and educator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Falmer, 2001.
- [2] J. Lee, "Relationships between cognitive and affective characteristics that affect creative teaching behaviors of middle school teachers", *Korean Journal of Thinking Development*, Vol. 11, No. 4, pp. 53-76, 2015.
- [3] S. Woo, *The effects of early childhood teachers' playfulness, play-teaching efficacy and teaching flow on the creative teaching behavior*, Master's thesis, Incheon National University, Incheon, Korea, 2021.
- [4] D. Lee, *The influence of early childhood teachers' playfulness and creative teaching behavior upon teacher-young child interaction*, Master's thesis, Incheon National University, Incheon, Korea, 2021.
- [5] J. Le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playfulness of infant teachers, efficiency of play teaching, teaching creativity, and teacher-infant interaction*, Ph.D dissertation, Incheon National University, Incheon, Korea, 2021.
- [6] J. H. Kim, "The effects of child care teachers' playfulness on teacher-young children interaction: mediating effects of teacher efficacy",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2, No.2, pp.427-433, 2021.
DOI: <https://doi.org/10.5762/KAIS.2021.22.2.427>
- [7] K. Kwon, E. Hwang, & J. Park, "The effect of kindergarten teacher's teaching flow and teaching efficacy on creative teaching behavior",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36, No.3, pp.334-356, 2016.
- [8] K. Kim, "The effect of preschool teachers creativity on creativity-fostering teaching: focusing on mediating effect of teaching efficacy", *Korean Journal of Childcare and Education*, Vol.16, No.2, pp.47-65, 2020.
DOI: <https://doi.org/10.14698/jkcc.2020.16.02.047>
- [9] H. J. Kim, & H. A. Seo, "The meditating effect of instructional creativ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ing efficacy and teaching flow in early childhood teachers",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35, No.3, pp.151-170, 2015.
- [10] W. T. Kim, & Y. S. Paik, "Early childhood teacher's creativity and teacher's efficacy",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Vol.13, No.3, pp.51-67, 2009.
- [11] Y. S. Paik, & B. J. Kang, "The relations among job satisfactions, teaching efficacy and instructional creativity of child care center teachers", *Korean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Vol.76, pp.25-47, 2013.
- [12] Y. S. Paik, & B. J. Kang, "The relations a between teacher's emotional Labor and teacher-young children interactions in the mediating effects of teaching efficacy and the instructional creativity of day care center teachers",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19, No.2, pp.179-200, 2014.
- [13] E. S. Seo, & M. S. Kim, "Mediation effect of instructional creativity in the influence of self-reflection intelligence of day care center teachers on teacher-young children interactions",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 Educare Welfare*, Vol.22, No.3, pp.325-350, 2018.
DOI: <https://doi.org/10.22590/ecee.2018.22.3.325>
- [14] J. Lee, "Teaching metacognition, teaching flow and creative teaching behaviors differences between teachers by cluster types based on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 Education*, Vol.32, No.2, pp.67-91, 2015.
DOI: <https://doi.org/10.24211/tjkte.2015.32.2.67>
- [15] D. Jeong, & D. An, "The effects of early childhood teachers' conscientiousness on creative teaching behaviors through teaching metacognition and expertise development", *The Journal of Thinking Development*, Vol.17, No.1, pp.81-108, 2021.
DOI: <https://doi.org/10.51636/JOTD.2021.04.17.1.81>
- [16] H. J. Hwang, & S. J. Kim, "A study on the meaning of reflection and meta-cognition in mathematics education", *Communications of Mathematical Education*, Vol.33, No.1, 2019.
- [17] Y. Chae, "The mediating effect of reflective think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arly childhood teachers' childcare efficacy and teacher-infant interaction",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13, No.1, 2022.
- [18] H. J. Kwak, "The Effects of Strategies of Reflection on Teaching in the Proces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al Practice",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Vol.8, No.3, pp.229-244, 2004.
- [19] H. W. Lee, "A study on the personality disposition of early childhood teachers affecting the teachers' belief of efficacy",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Vol.29, No.2, pp.139-153, 2008.
- [20] J. Y. Park, & Y. S. Kim, "Analysis of relationship between K-CESA and adult playfulness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0, No.21, pp.207-223, 2020.
DOI: <https://doi.org/10.22251/jlcci.2020.20.21.207>
- [21] Proyer, R. T., "A new structural model for the study of adult playfulness: assessment and exploration of an understudied individual differences variab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108, pp.113-122.
- [22] Enochs, L. G., Riggs, I. M., "Toward the development of an efficacy belief instrument for elementary teachers", *Science Education*, Vol.79, No.1, pp.63-75, 1990.
- [23] H. Y. Shin, *Effects of teachers' job stress and belief of efficacy on the quality of teachers' interaction behaviors in child care*, Doctoral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2004.
- [24] H. J. Kim, *A structural analysis on factors related to teaching professionalism of kindergarten teachers*, Ph.D dissert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Korea, 2015.
- [25] E. Park, & W. J. Cho, "Construct validity in core competencies for novice kindergarten teachers in Korea", *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Vol.10, No.1, pp.107-131, 2015.
DOI: <https://doi.org/10.16978/ecec.2015.10.1.005>
- [26] J. M. Kim, *A structural analysis of the factors affecting kindergarten teachers' professionalism*, Ph.D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Seoul, 2017.
- [27] Y. S. Paik, & W. T. Kim, "Validation of the self rating scales for early childhood teacher's creativity",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Vol.12, No.3, pp.111-128, 2008.
- [28] Anderson, J. C., & Gerbing, D. W.,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Vol.103, No.3, pp.411-423, 1988.
DOI: <https://doi.org/10.1037/0033-2909.103.3.411>
- [29] Mahmut, M. K., Menictas, C., Stevenson, R. J., & Homewood, J., "Validating the factor structure of the Self-Report Psychopathy Scale in a community sample", *Psychological Assessment*, Vol.23, No.3, pp.670-678, 2011.
DOI: <https://doi.org/10.1037/a0023090>
- [30] Hu, L. T., & Bentler, P. M.,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Vol.6, No.1, pp.1-55, 1999.
DOI: <https://doi.org/10.1080/10705519909540118>

김 종 훈(Jong-Hoon Kim)

[정회원]



- 2016년 2월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아동청소년학과 (철학박사)
- 2016년 9월 ~ 2017년 8월 : 성균관대학교 겸임교수
- 2017년 9월 ~ 현재 : 경상국립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아동발달, 소셜네트워크분석

박 선 미(Sun-Mi Park)

[정회원]



- 2010년 2월 : 부산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학과 (교육학박사)
- 2011년 3월 ~ 2015년 8월 : 동양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 2015년 9월 ~ 현재 : 경상국립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유아창의성교육, 유아교사교육